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취약점에 대한 안전중요도 결정

PRIORITIZATION OF SAFETY SHORTCOMINGS from Periodic Safety Review Results

신태명
충주대학교

김흥기, 김효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요 약

원전의 안전성 확인 및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는 작년에 국내최초로 시범 원전인 고리 1호기에 적용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자 및 그 위탁기관에 의한 평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평가내용으로서 IAEA가 제시한 11개의 안전인사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행안전기준 및 관행과의 비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는 현행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 취약점 목록을 작성하고 결정론적인 방법과 확률론적인 방법에 의한 안전중요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사항에 대한 중요도의 결정은 이를 심사하게 될 규제기관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안전중요도 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들에 대한 안전중요도 순위결정 방법에 대하여 주요 경험국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의 추진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